

Ⅲ-7 생활의 매너

1. 일본인과의 교류

생활에서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일본의 예의범절이나 생활습관입니다.

일상생활속에서 조금씩 익혀갑니다.

- 약속한 시간은 반드시 지키도록 합니다. 늦어지거나 못 갈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 일본인의 인사는 허리를 굽혀 머리를 숙입니다.
- 그다지 친하지 않는 사이에서는 깊이 파고든 질문 (직업이나 수입, 가정의 이야기 등) 을 하는것은 실례하게 됩니다.
- 남에게 무슨일을 부탁할 때에는 집요하게 따지거나 강한 자기주장을 하면 상대방이 불쾌하게 느낍니다.

2. 이웃교제

(1) 인사

이웃사람들간의 인사는 중요합니다. 평소의 인사가 훗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또한 서로 인사를 하면 방법상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2) 소음

도심부에서는 특히 생활소음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소리에 그리 너그럽지 못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에서는 특히 조심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밤 10시를 넘어서 인근에 울리는 소리를 내는것은 삼가하도록 합니다. 또 야간에 일을 하고 낮에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인은 소음이라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건물구조상 이웃집에는 생각보다 소리가 크게 들릴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야간의 청소기의 사용, 빨래, 사람출입, 문의 개폐 등에는 조심합니다.

본인이 소음으로 인해 곤란을 겪었을 때에는 집합주택 경우에는 입거계약을 맺은 부동산가게으로, 그 밖의 경우는 자치회의 역원 등에 상담하도록 합니다.

(3) 자치회 (정내회)

지역에따라 대간 자치회 등 인근 사람들과의 친목을 다지거나 청소, 방법 등의 사업을 자주적으로 추진하는 지역단체가 존재합니다. 보통은 여러가지 친목행사나 공공부분의 청소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자치회에 참가 여부는 어디까지나 임의이기는 하나 특히 지역의 행정정보와 같은것은 자치회를 통해 입수하기 쉬운 경우도 있어 편리합니다. 또 인근주민들과 친목이 생기면 방법상도 도움이 될 경우도 있기때문에 될수록 참가하도록 합니다.

(4) 회람판

자치회에 들어가면 「회람판」이 차례로 돌아옵니다. 회람판은 관청부터 온 정보를 클립보드에 고정시킨 형태가 많습니다. 이웃집사람이 가져오기 때문에 읽으면 도장 혹은 사인을 하고 다음 집에 가져갑니다. 다음에 어디로 가져가면 좋은가를 받을때 확인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5) 청소

동네나 단지에 따라서는 각각 지정된 날에 집주위나 도로, 가까운 공원 등의 청소를 합니다. 이때에는 각 가정에서 1명이상 나와 청소나 잡초뽑기 등을 합니다. 평일은 일 등으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나 인근주민들과의 친목을 위해서도 반드시 청소에는 참가하도록 합니다.